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N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I·SEOUL·U



2019 서울365 스트리트패션쇼 운영계획

2019. 4

경 제 정 책 실
[거점성장추진단]

서울365 스트리트패션쇼 운영계획

서울명소에서 시민 및 관광객들이 정기적으로 일상속에서 패션문화를 향유하고, 신진디자이너 적극 발굴 및 판로개척을 통해 패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스트리트패션쇼를 운영하고자 함

I 추진배경

- 2018 운영상 보완점 분석
 - (운영방식) 시정명소별 변동 개최로 장소섭외 시일소요, 월 2~3회 개최
 - (의상확보) 초창기 365패션쇼 인지도 부족 및 명망있는 디자이너 섭외 과정에서 의상협의 시일 소요
 - (이슈화) 비정기 운영으로 인해 관광객 사전홍보 및 시민 이슈화 부족

II '19 중점 추진방향

- 패션쇼의 정기화
 - 패션쇼 정기운영으로 관람예측성 제고 및 운영횟수 대폭증대
- 관광상품화
 - 'Visit Seoul' 등재
 - 외국인관광객 환대주간행사('19.4.29~5.6) 명동, 홍대 패션쇼 진행
- 대시민 이슈화
 - 365이동버스, 파워인플루언서 활용통해 홍보효과 극대화 및 이슈화
 - 신진디자이너 발굴 및 스타모델 육성으로 패션계 이슈화
- 패션상권 활성화
 - 패션쇼 진행시, QR코드 및 최신유통방식 'V-커머스' 활용
 - 패션쇼 진행시 판매행사 연계추진으로 판로개척 지원

Ⅲ

세부추진계획

추진방향

- 목적 : 패션쇼의 정기화 및 예측가능화를 통해 365패션쇼를 관광상품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보다 쉽게 패션쇼를 누릴수 있는 기회제공
- 운영기간 : 2019. 4.~12.(혹서기 제외)
- 운영방식
 - 디자이너 위크 운영 : 매월 이달의 디자이너 2명 선정, 2주마다 교체
 - 장소·시간의 정기화 : 시청일대, 신촌일대, 청계천, DDP일대 등 사전공지
 - 사전홍보 강화 : 서울365패션쇼 랩핑버스 운행(월~금 09시~18시)
온라인 이벤트 다양화로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 및 홍보유도
 - 365모델 2개조 편성 : 유동적 운영으로 패션쇼 횡수 증대 및 환경개선
- 운영장소 : 시정명소 및 시민 다중 이용장소 등

세부 일정

요일	시간
월 (시청 일대)	① 서울광장 (12:00, 서울도서관 앞) ② 덕수궁돌담길 (12:20, 시립미술관 앞 광장) ③ 서울도시건축박물관 (12:40, 서울마루) ④ 광화문 디타워 앞 (13:00)
목 (신촌 일대)	① 신촌 유플렉스 (12:00 광장 공터) ② 창천문화공원 (12:20, 공원 안) ③ 연세대 캠퍼스 앞 (12:40, 정문 앞) ④ 이화여대길 (13:00, 퍼레이드)
토 (동대문 일대)	① 청계천 오간수교 수상무대 (18:00) ② DDP 어울림광장 일대 (18:30, 19:00)

※ 6월 이후 찾아가는 패션쇼 진행 예정

IV

행정 사항

문화정책과, 관광정책과

- 서울관광 홈페이지 노출, 관광업계에 정보제공 등 관광자원화 협조
- visit seoul 등재
- 외국인관광객 환대주간 연계행사 : 명동, 홍대, 청계천 행사연계

언론과, 시민소통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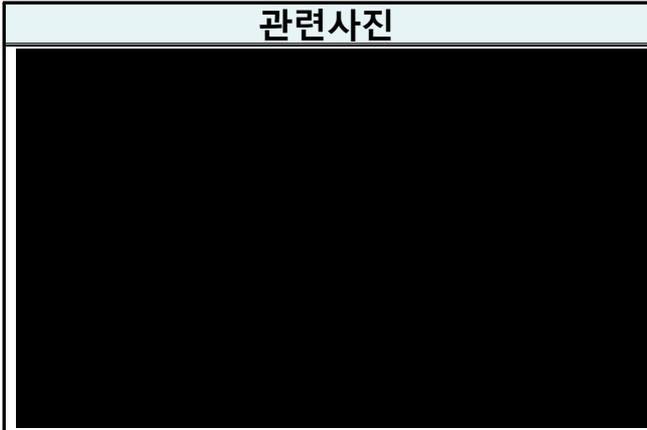
- 신속한 홍보전파를 위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활용
 - 우리시 시민블로거기자단,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활용
 - 서울 365 패션쇼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활용
- 보도자료 적극활용, 출입기자 취재요청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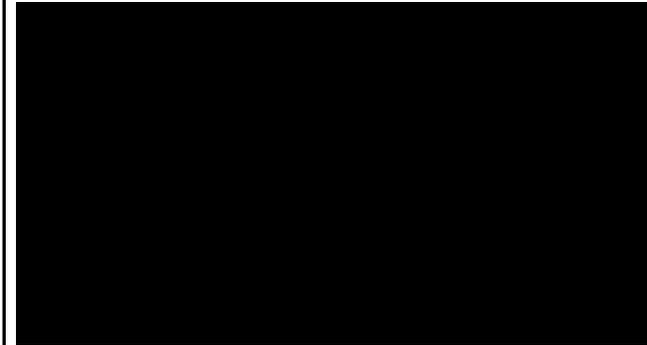
향 후 계 획

스트리트패션쇼 진행 :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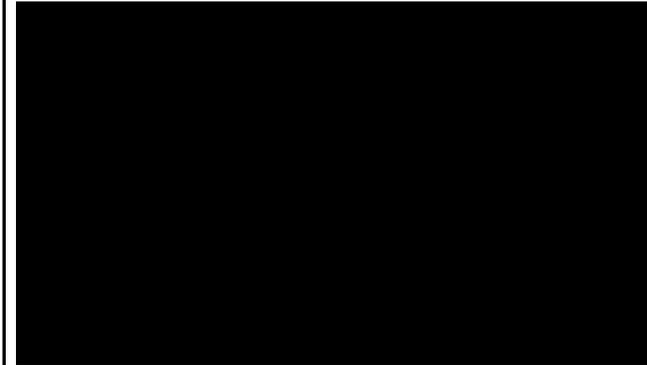
- 붙임 1. 상반기 패션쇼 일정 1부.
2. 서울365 스트리트패션쇼 장소 1부.
3. 서울365 랩핑버스 시안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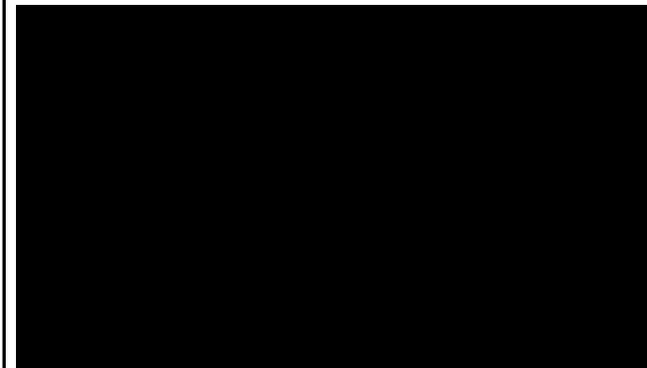
서울광장(서울도서관 앞)



덕수궁 돌담길 앞



도시건축박물관(서울마루)



광화문 D타워 앞

보도자료

경향신문

2019년 04월 16일 화요일 05면 사회



덕수궁 돌담길 따라 '패션 워킹' 15일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린 '서울 365스트리트 패션쇼'의 참가한 모델들이 무대를 하고 있다. 권태근

서울, 매주 3회 신진 디자이너 패션쇼

서울광장·신촌·DDP 어울림광장 등 10곳서 올해 500회 이상 개최

QR코드 활용 구입도 가능

서울 신촌과 시청, 동대문 일대에서 매주 월·목·토요일에 신진 디자이너의 패션쇼가 열린다. 현장에서는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후원 디자이너의 패션쇼도 대대적으로 열린다. 서울은 올해 500회 이상 예정된 '서울

365패션쇼'만이 15일 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은 17개 구·자치구, 서울사랑마을 등에 199회 패션쇼를 열었는데 올해는 횟수를 다섯 배 이상 늘렸다. 시민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매주 3회 '스트리트 패션쇼'를 정기 운영한다. 대형 '이벤트 디자이너'를 뽑아서 운영

하고 신촌 유관레오알 중앙,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 등 총 10곳에 연이어 열었다. 관람 후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QR코드를 촬영해 구입할 수 있도록 운영해 신진 디자이너의 판매 기회를 늘린다. 후원 디자이너의 패션쇼는 '서울패션쇼'는 매년 한 번

별표 한강공원, 노들섬, 문래예술거리 등 서울 명소에서 개최된다. 첫 번째인 패션쇼는 이상별 디자이너의 작품으로 오는 16일 오후 7시부터 한강공원 예술섬 푸디에서 열린다. 다음날에는 방탄소년단(BTS)의 12월 미국 투어인 콘서트(L.A)에서 열린 제1회 그라미어워즈에 입고 나간 화제가 된 옷을 만든 김서현 디자이너가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상세 일정은 서울 365패션쇼 홈페이지 www.seoul365fashion.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취재팀 기자 enghyun@kookilnews.com

경향신문,한겨레,국민일보 등 조간신문 10군데



JTBC, YTN, KBS 등 방송사 메인뉴스



지면, 인터넷, 방송사 등 154개 기사 노출